

게리 예이츠 박사, 예레미야, 강의 25, 예레미야 30-33, 위로의 책과 유배의 여파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5회기, 예레미야 30-33장, 위로의 책과 유배의 여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위로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회복에 대한 강력한 약속, 하나님 은혜의 아름다움을 어떤 의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를 위해 묘사한 여호와와의 맹렬한 진노가 유다에 대한 이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는 이런 놀라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의 상황을 반전시키실 회복의 약속. 추방 대신 안전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는 대신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상처에 대한 치료가 없는 대신에 완전한 치료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로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약속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서 후반부 26~45장에 이 부분 또는 이 장들의 그룹을 배치하고 그것이 성경의 이 더 큰 부분에 문자적으로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부분 전체가 유다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회복, 즉 장래에 백성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책의 이 특정 섹션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들어맞나요? 부분적으로, 나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이 책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최종 작가이자 편집자인 예레미야 바룩, 또는 이 책의 최종 형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강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 그래서 중앙에 배치됩니다.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책 앞면에는 판단력이 있고 책 뒷면에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음모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불충실한 아내는 주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항상 그에게 신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죽음에 합당한 불성실하고 패역한 아들,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 고백하기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 책 전체에서 온갖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결국 그가 회개하면 그는 올바른 말을 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방식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후반부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책 주변이나 책의 이 특정 부분 주변에 여호야김의 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6장부터 35장까지는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유다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삶을 경험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 무명의 집단인 레갑 사람들뿐이다. 예레미야 30~33장이 첫 번째 패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 가운데 생명을 경험한 소수의 무명의 소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 패널에도 이 모든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시대의 사역에서 레갑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에 정말로 격려가 되는 것은 위로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동일한 약속이 다윗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남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레위 사람들에게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레갑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엄청난 국가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36장부터 45장까지 두 번째 패널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자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야김 시대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지도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아마도 바벨론의 위기가 실제로 불붙고 전면에 나서기 전에 주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패널의 후반부에서는 첫 번째 패널과 동일한 기본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축복을 경험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에는 이집트 난민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6~45장의 두 번째 부분에는 포로기 이후 유다에서 일어난 일이 나와 있습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그 시점부터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이 절정의 사건이기는 하지만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 후에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0장부터 43장까지는 유배 직후의 여파를 알려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야김 프레임워크와 26~45장에 있는 두 패널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30~33장과 예레미야 40~43장 사이의 유사점과 대응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비 중 하나. 30장부터 33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의 여파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루실 때 그들이 미래 어느 시점에 경험하게 될 축복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40장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은 유배 직후의 여파입니다. 30-33장은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날, 마지막 날, 미래의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미정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유배 직후 유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극도로 대비되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장부터 33장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 땅에서 사는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이 큰 축복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40-43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하는 대신 애초에 포로의 심판을 초래했던 불순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6장부터 45장까지의 이 두 장의 구조의 일부, 목적의 일부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포로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궁극적인 약속과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다루고 있는 단기적인 현실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43장에서는 포로 생활 직후의 사건을 다룬다.

자, 이제 이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강의에 이어 이 미래의 구원 시대에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거나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구체적인 약속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던 폐허가 된 도시들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장 18절에서 이러한

재건축에 대한 그림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 복을 회복시키리라.

30부터 33까지의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장막의 운명을 회복시키고 그의 거처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 성은 그 둔덕 위에 중건될 것이요 궁궐은 원래 있던 자리에 설 것이니라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축하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여 적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작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백성은 크고 많아질 것이며, 그들을 기쁘게 할 일 중 하나는 주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이 헐어버린 성읍들과 성벽도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그 도시 전체를 재건할 예정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 거룩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힌놈의 골짜기와 같은 죄악된 곳과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여 시체를 버리는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복되어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위안서의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약속은 주님께서 두 번째 출애굽으로 묘사될 수 있는 구원 사업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 구약성서의 가장 큰 구원의 행위는 출애굽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속박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패턴은 주님께서 수많은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시는 구원 역사 전반의 패턴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의 백성의 회복은 두 번째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특히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이 두 번째 출애굽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첫 번째 출애굽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행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큰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애굽이나 한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포로와 포로로 잡혀온 여러 곳에서 데리고 나오실 것입니다. 더 큰 출애굽을 만들 두 번째 일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했던 것처럼 서둘러 바벨론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빵이 오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그곳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출애굽은 세 번째 이유로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들이 성지로 순례를 떠날 때 주님께서 광야를 오아시스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고 음식과 물이 부족하여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38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서 일어날 일은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샘과 물과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급받고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이 될 것입니다. 넷째, 두 번째 출애굽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고 그들이 다시는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항상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너무 커서 첫 번째 출애굽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예레미야 30-33장에서 두 번째 출애굽 모티브를 볼 수 있는 곳을 주목하십시오. 31절 2절에 여호와께서는 칼을 면한 백성,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을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멀리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므로 너를 향한 나의 신실함을 지키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조차도 주님을 그 죄에서 떠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31장 8절과 9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맹인 과 저는 자, 임신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의 큰 무리가 다 함께 여기로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임신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그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31장 11절,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출애굽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 대속물과 구속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가족을 대신하여 행동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여 속박에서 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용어는 그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처음 인도하실 때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실제로 주님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주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가 초점을 맞춘 궁극적인 구원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서의 주요 주제와 모티브는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은 위로의 책에 나오는 세 번째 두드러진 사상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을 통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은 이백년 동안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722년부터 586년까지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감에 따라 유다는 기본적으로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서 그 분열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가 모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아주 어리석은 정치적 결정을 하여 정치적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배교를 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속한 왕국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셨으나, 그 왕국을 크게 약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분단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주님께서 장차 그분의 백성을 다시 불러오실 때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31장 27절과 28절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사람의 씨와 유다 족속에게 사람의 씨를 뿌릴 때에는 ” 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씨앗.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고 훼파하며 전복하고 멸하려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심판을 묘사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라. 내가 그들을 지켜서 그들을 건축하고 다시 심으리라.” 약속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면

나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리라. 부족들은 함께 결합될 것이고, 통일된 민족으로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레미야 30-33장에 대한 언급을 읽을 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야곱이나 에브라임 또는 일반적으로 북쪽 왕국과 더 관련이 있는 이름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열은 미래의 왕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위로의 책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의 생애 동안 다윗의 집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약속과 이는 많은 예언서에서 사실이며, 미래에 이상적인 다윗 왕조의 통치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왕조 자체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또는 그들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되도록 계획하신 모든 것을 갖춘 이상적인 다윗 왕이 나타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신약성경에 이르면 예수님은 그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표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와 구약의 선지자들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서에서 실제로 세 곳에서 이것을 봅니다. 30장 8절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그의 멍에의 목을 꺾고 결박을 끊으리니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주위에서 멩에를 메고 말하면서 너희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멩에를 깨뜨림으로써 그 메시지에 맞서려고 했고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공허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의 속박의 멩에가 부서지고, 그 속박의 멩에 아래 있는 대신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이스라엘 통치자에 관한 약속인 30장 21절의 성취가 예수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왕자는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통치자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오게 하여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겠다.

누가 감히 나에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여기에는 다윗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33장 15절과 16절에서는 예레미야서 23장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의 다윗 왕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시드기야는 다윗 가계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나의 의이시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그 이름에 걸맞게 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의로운 지부인 세덱 사막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괜찮은. 이것이 이와 함께 제공되는 기본 약속 중 일부입니다.

그들을 다시 땅으로 데려오고, 그들의 도시를 재건하고, 두 번째 출애굽, 남북의 통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그분께 복종하게 하려는 새 언약, 그리고 새로운 다윗을 세우십니다. 31장 31절과 34절에 주어진 새 언약의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에게 순종하려는 내적 욕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보았던 불순종의 순환과 역사를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역사시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기까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은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고, 이것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

예레미야 32장 39절과 4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나를 영원히 경외하게 하리라. 앞부분에서 여호야김의 문제 중 하나, 그가 두루마리를 통해 경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루마리를 잘라내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미래의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에게 복을 주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하고 신실하며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기 30장부터 33장까지의 기본 약속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반응은, 와, 이거 대단해요.

우리 거기 언제 도착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40~43장을 보면 39장에서 그 도시의 멸망을 기억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레미야는 유배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부터 43장까지에서 보는 것과 때로는 매우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위로의 책의 시기는 회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망스러운 점은 실제로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심판의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마침내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제거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뿐이다.

글쎄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심판과 불순종의 상태가 실제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33장에 약속된 축복과 40~43장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대조가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그들이 항상 그분께 순종하고 따르며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들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그다라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 같습니다. 왕좌에 왕은 없지만, 예레미야의 사역 내내 그를 지지해 온 사반 가문의 그다라가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종의 작은 수익을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의아해합니다. 와, 이것이 적어도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초기 형태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40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맹세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느니라

좋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기 40장과 41장에서 사라지고 그달리야가 그의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잘 될 것이요, 우리가 형통할 것이요, 우리가 성공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미츠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 앞에서 너희를 대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담아 두고 너희가 빼앗은 성읍들에 거하라. 그래서 그달리야는 30-33년 회복의 풍요와 축복과 번영을 초기에 그들이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30~33년의 회복의 시작인가? 나는 그것이 해설자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40장부터 43장까지의 이 부분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 구체적인 불순종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특히 그 후에도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심판을 가져왔던 동일한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첫 번째 행위는 느부갓네살이 총독 그다랴를 임명하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다랴를 임명하신 분이시므로 그다랴가 암살되는 것입니다. 40장 9절에서 그다랴는 그 부분에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벨론의 헤게모니 아래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바벨론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다랴는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시드기야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고 그들의 멍에를 메라. 만일 당신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복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권위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잘 될 것이며 당신의 생명도 보존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다라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처음에는 그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과일을 수확하고, 곡식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심지어 우리는 난민과 유배자들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가운데와 에돔과 그 밖의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남은 사람을 남겨 두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총독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그들은 그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30장부터 33장까지, 30장부터 33장까지는 주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진행되고 있는데 와, 이게 시작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41장에서 그달리야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의해 암살당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마엘이 다윗의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이 초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암살함으로써 직접적인 불순종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두 번째 행위는 42장부터 43장까지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암살의 여파로 선지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이 반군 집단이 그들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응할 때, 그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더 많은 파괴를 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전보다 더 이상 유다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 요하난과 그의 일행의 계획은 그들이 이집트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인 땅을 떠나면 그들은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다랴를 암살한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 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42장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 또 다시 '와, 이게 30~33의 시작인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한다.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칙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중재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여기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라. 보십시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십시오.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신다면, 요하난과 그의 일행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말한 것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자마자 그들은 불순종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바룩과 배반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고,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과 33, 40과 43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30~33년에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은 항상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 구체적인 불순종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586도요.

두 가지 구체적인 불순종 행위, 즉 41장의 그다랴의 암살과 43장의 유대인들의 애굽으로의 피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586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30에서 33과 40에서 43 사이에 매우 분명한 대조를 제공하는 두 번째 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모티브 중 하나가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실 것이라는 점과 두 번째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과 구원은 처음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40장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의 역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40장에서 그다랴의 통치나 그달리야의 통치 아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3, 1~7에서 요한난과 그의 일행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애굽 땅 밖, 그의 사역을 마치고 끝난다.

제2의 모세로서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의 역전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신명기 28장 68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 그들에게 내리실 언약의 저주 중 하나가 그들을 배에 태워 애굽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삶에서 그는 배에 오르지 못했지만 결국 애굽으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구원역사의 역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까지의 맥락에서 우리는 위로서에 약속된 것과 정반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30-33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합니다.

40장부터 43장은 우리에게 출애굽이 없다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전개하고 싶은 것은 위로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들의 왕인 다윗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국의 압제자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맺으신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다윗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40장부터 43장까지의 다윗 가문의 대표자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궁극적으로 그달리야를 암살하고 실제로 더 많은 심판을 가져오는 왕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의로운 지파가 되어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새로운 다윗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 포로기 직후에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던 사람들과 똑같은 또 다른 다윗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Applegate라는 학자는 이스마엘이 그달리야를 암살했을 때의 행동이 바빌론의 패권과 유대의 회복이라는 야훼의 목적에 대한 다윗 가문의 적대적인 반대의 그림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집이 회복을 촉진하고 다윗의

집이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대신, 다윗의 집은 더 많은 심판, 더 많은 속박, 더 많은 폭력, 더 많은 재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세우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유배 직후 다윗 가문의 주요 대표자는 예레미야 22장에서 읽을 수 있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만큼 부패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스마엘이 그달리야를 암살하도록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을 회복시키려는 그의 실패한 시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집에 다시 권세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야기의 아름다움과 예술성, 정교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3장까지에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중 하나는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부수적인 각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거나 수년 동안 구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스마엘과 그달리야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술자가 하는 일은 몇 가지 흥미로운 방식으로 서술자가 사울과 다윗의 더 잘 알려진 이야기에 비추어 이스마엘과 그달리야의 이야기를 묘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으로 대체된 하느님의 기름부음받은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의 집에 주어져 그들이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에서 행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에서 최상권의 역할, 헤게모니의 역할, 통치의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역할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통치자입니다. 40장 5절, 7절, 11절, 41장 2절, 41장 10절을 보면 그다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다라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통치자입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서술자가 그 이야기로 돌아가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난 변화를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이야기에서 새로운 다윗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달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좋아요, 그럼 몇 가지 유사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특히 40장과 41장은 우리에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상기시켜 줍니까? 그런데 그달리야가 총독이 되면서 모압, 암몬, 에돔 같은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곳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40장 7절에서는 새로운 다윗인 그달리야가 미츠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이 음모를 실행하고 그달리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암몬 왕 바엘루스의 지원 제안에 어떤 면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은 유다를 피해 도망하게 되었을 때 암몬 족속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왕국 초기에 암몬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괜찮은. 따라서 장소와 이름, 지리에 따라 우리는 이미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메아리를 듣고 있습니다.

괜찮은. 이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다른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달리야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스마엘이 음모를 꾸미고 이스마엘이 자기 목숨을 빼앗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다라는 이에 대한 조치를 거부합니다. 어찌보면 다윗이 사울과의 이 큰 갈등에 연루되어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도망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어떤 면에서 그달리야는 이스마엘을 대적하는 행동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이야기에서 다윗 자손인 이스마엘은 아무 문제 없이 손을 뻗어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윗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달리야를 임명하셨고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그달리야를 암살한 후에도 그의 폭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4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달리야를 도우려고 북쪽에서 온 순례자 70명을 추가로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들을 속이고 속이고 그들을 그달리야에게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달리야에게 일어난 일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그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그달리야의 지지자들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살해한 사건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다윗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반대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었던 제사장 85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 우리가 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도망쳐 탈출하려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1장 10절에 볼모와 포로를 잡는 일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왕의 딸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암몬으로 달려가 도망할 예정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기 전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사건 중 하나는 다윗이 가족들을 납치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집 사람이 아내와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고, 그 다윗 집 사람을 잡아가야 할 사람은 요하난과 군부대들입니다. 그의 백성을 유배시키려고. 이스마엘은 다윗 자손으로서 회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집이 여전히 큰 환란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40-43년 이후의 이 시대에 다윗 계열의 유일한 대표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약속하신 의로운 가지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하난과 군사들이 납치된 이스마엘의 희생자들을 구출하러 가는 곳은 기브온 못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곳은 아브넬과 요압이 다윗 가문의 대표자 12명과 사울 가문의 대표자 12명을 세우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그들은 싸운다. 모두 죽임을 당하고 결국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물리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그 나라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절에서는 기브온 못에서 패한 후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집, 유다 백성이 여전히 형벌을 받고 있음을 봅니다. 심판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은 가까운 장래에 경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전반에 걸쳐 보아온 죄의 패턴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패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 포로된 백성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그 땅으로 돌아오실 좋은 무화과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약속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켜 온 마음으로 그들을 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으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과거를 회개할 때, 그때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 직후 그 땅에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두 가지 거대한 불순종 행위가 다윗 가문과 다윗 가문의 반대를 계속해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까지를 보면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회복과 40장부터 43장에 일어나는 심판 사이의 대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중요한 평행법을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서술 평행법을 보았습니다. 서술자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적이고 반복되는 죄에 관해 이 점을 계속 강조할 다른 유형의 평행법 중 하나는 화자가 40장에서 43장까지에서 발생하는 죄를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의 불순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6장에서 여호야김은 우리야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41장에서는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서 칼로 죽이고 그달리야를 처형한 사람은 이스마엘이다.

여호야김이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자 그의 시신을 공동 매장지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북왕국에서 예배하러 온 70명을 죽인 것이 극악하고 반역적인 행위였을 때 그 시체를 우물이나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38장에서 군 관리들은 예레미야가 전쟁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를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우물, 저수조에 던졌습니다. 이스마엘은

70구의 시신을 저수조인 보르 (41장 7절)에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시드기야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집트가 이 모든 일에 개입한다면 압력이 완화될 것이며 바빌로니아인들이 물러갈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보라 애굽 사람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능히 이기리라

포로의 여파인 42장과 43장에서 요하난과 그의 관리들은 이집트가 그들의 안전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시드기야에게도 통하지 않았고, 요하난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군장교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하자 예레미야는 반역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요하난과 군장들은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는 조언을 듣고는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두고 말한 것과 같은 세겔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라가서 거기에 덧붙여서, 바룩이 이제 바룩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기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한 실망스러운 역사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답답한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대조를 이루는 예레미야서 26장부터 45장까지로 끝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날 회복의 희망은 포로 생활 직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유배자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계획, 여러분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복잡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로 돌이킬 때까지는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집필한 한 작가는 끝없는 유배에 대한 신학적 개념에 대해 논평합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30장에서 33장까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제 회복이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9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묵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포로 기간이 끝나가는 다니엘은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즉각적인 보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로 돌이킬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게 7년 중 70이레를 정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70년 후에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범죄를 끝내시고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는 먼 미래의 이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자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강요된 것은 단지 외국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제시된 대조를 통해 30장부터 33장까지의 약속과 40장부터 43장까지 포로 생활 이후에 일어날 일의 현실을 봅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5회기, 예레미야 30-33장, 위로의 책과 유배의 여파입니다.